

올해 연등행렬에서 한마음선원이 선보인 승단 행렬등 '금강저등'과 장엄등 '여래공심불등'이 행진을 하고 있다.

세대·국적 넘어선 '세계일화' 구현 법석

〈世界一花〉













불교 문화 한마당 우정국로 채우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가 불교 문화의 향기로 물들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5월 1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을 개최했다. 70개 단체는 △선명상마당 △전통마당 △나눔마당 △NGO마당 △국제마당 △공평무대 △청년·MZ마당 △먹거리마당 등을 주제로 12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보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행사장 곳곳은 체험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 참가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으며 우정국로 일대는 활기로 가득 찼다.

선명상마당 선무도 부스에서는 청년과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참가자들은 선무도 동작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마당에는 연꽃 걸이와 단주 만들기, 전통 나전칠기 자개 공예 체험, 만다라 그리기, 팔모등 만들기 등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들과 외국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년·MZ마당에는 오감정리와 출가상담 부스 등 청년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돌명상 프로그램 '걱정을 놓아드립니다'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돌에 담아 내려놓으며 불교의 위로와 내려놓음의 의미를 체험했다.

먹거리마당에서는 사찰음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정각사는 두부강정과 연잎밥, 비빔밥 등을 현장에서 조리해 선보였고, 연화원은 사찰 떡볶이, 튀김 등 간편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